SSK 동아시아지역질서연구회,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모색

전재성

o 국제정치 이론의 현 상황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이 21세기 탈냉전, 탈근대 이행기의 국제정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들

-문명, 문화권, 지역 등 새로운 단위의 중요성 증가, 국가 이외의 다차원적 행위자들의 중요성 증가

-국제정치학 이외의 학문 분야의 발전으로 이들을 수용, 흡수해야 할 과제들에 직면

-탈실증주의 논쟁, 문화적 전환, 언어적 전환, 심리학적 전환, 사회학적 전환, 역사적 전환 등 다양한 전환(turns)에 직면.

-구성주의, 탈근대이론, 비판이론의 강화로 기존 영미중심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비판 증가

o non-Western turn in IR

-20세기 국제정치이론의 영미 중심성에 대한 비판의 증가. 냉전 종식 이후 미소 양극체제 대결 논리 이외의 다양한 갈등구조가 강화되면서 서구이론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 증가

-유럽 국제정치체제의 확산이 국제정치현실에 가져온 보편화 현상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비서구를 설명할 수 있는 국제정치이론의 필요성 증가, the rise of pre-modernity, alternative roads to modernity and post-modernity

-탈근대로 가는 경로를 영미권, 유럽이 독점할 수 없는 현상의 발생

-영미 국제정치학 이론이 보편화되는 담론구조의 권력정치적 성격, 20세기 국제정치학의 문제해결적 성격, 현상유지적 성격에 대한 비판 증가, 국제정치학의 발달에 대한 계보학적 편향성 지적

-유럽과 영미권을 상대화하고, 계보학적 편향성까지를 설명할 수 있는 비판적 메타이론의 필요성 증가

-각 지역별 국제정치권역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지구화시대의 지구국제정치이론틀의 마련 필요성

o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요건들(메타이론적 구성요소)

-역사사회학적 전회; 현재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역사적 범위를 설정할 필요, 거대 이행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사회학적 개념틀의 유용성 논의 필요

-탈실주의의적 전회;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유용성을 인정하되, 맥락적으로 정의되는 행위자들의 합리성에 조응하는 인식론의 필요성

-비판적 전회; 기존의 서구 국제정치론의 유용성, 정치성에 대한 가치론적 반성의 필요성

인식론적 전회; 동아시아 문명, 혹은 문화권에 고유한 지역질서의 이론적 재구성을 위해 내재적 접근, 이해의 방법의 필요성

o 지역질서의 구성요소

|  |  |
| --- | --- |
| 국가 간 관계변수, 사건의 차원 | 피상적 차원⇳근본적 차원 |
| 상호작용의 차원, 국가 간 관계변수 |
| 제도적 환경 |
| 세력/이익 배분구조(단위들 간의 세력 및 이익배분) |
| 개념, 관념, 문화적 차원(구성적 관념체계) |
| 조직원리(단위와 구성원리를 규정) |

o 조직원리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 조직원리는 단위와 단위들 간 기본 관계에 대한 구성적 원리; 무엇이 정당한 단위인가? 정당한 단위로서 주권성이 부여되는가? 주권적 단위들 간의 상호 승인, 이해된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조직원리

- 시대적 연속성/불연속성과 지역적 전파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단수 조지원리와 복수 조직원리, 복수 조직원리일 경우 이행, 중첩, 복합의 논리와 조직원리들 간 복합현상을 규정하는 메타적 원리, 일반화의 노력이 필요

o 기존의 서구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한 조직원리론

- 단수의 조직원리, 조직원리 간 이행의 완결성, 지역적 전파의 보편적 성격, 단위의 동등한 성격의 구성

- 단순조직원리의 정상성 상정(근대의 정상성 논의의 독점), 조직원리 간 권력현상에 대한 이론화 결여, 복수조직원리의 공존이 정상상태라는 점 외면

- 비서구 지역 피전파 지역 조직원리에 대한 보편주의적 규정이 가지는 억압적 효과. organized hypocrisy에서 오는 지역 간 불균형과 이용가능성.

o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복합조직원리에서 파생된 문제들

- “불완전한” 근대 이행; 단위의 주권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 영토를 보는 시각(불완전한 규획, 분쟁상태, 근대국제법/해양법의 원리 간 충돌), 주권의 분할 상태(역사적 단위에 대한 기억과 실제적 분단상태), 탈제국주의의 불완전성(근대 단계 간의 모순, 근대국가의 정상성에 대한 합의 기반 부족, 일본의 보통국가화 문제)

- 전통시대의 투사 - 탈근대 이행의 미래에 대한 특수한 비전 설정; 근대와 공존하는 전통 시대 인식의 투사, 중국의 민족주의와 중화주의의 연결(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사이버 민족주의, 탈근대적 매개수단 속에 표출되는 전통질서의 투사)

- 탈근대 네트워크/거버넌스 조직원리, 미래의 그림자; 동아시아에 특수한 변수는 아님. 투사되는 방식의 특수성. 미국의 제국추구와 한미동맹의 변환 사례, 지구화/네트워크 국제정치와 동아시아 등.

o 풀리지 않은 문제와 향후 연구과제

- 현재의 문제점; 추상적 이론틀의 조합, 각 시대별 구체적인 심화작업 필요, 각 시대의 조직원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슈와 사건에 대한 경험적 연구 축적, 21세기 국제정치이론의 여러 turn들의 문제의식과 이론요소들 흡수 및 적용, 복합규범론 발전과 가치/실천론 발전, 한국 외교전략과 구체적으로 연결 등.

-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보다 넓고 깊게.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환. 서구 실증주의 이론관을 넘어선 이론적 요소들로 질서사를 정리할 필요. 새로운 개념틀의 필요

- 우선 시기구분이 필요. 조직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

1) 전통 시대 동아시아 질서; 천하질서에 대한 시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Fairbank vs. 신청사 vs. 한국의 제3의 시각, 전통 시대 내에서의 시기구분도 필요.

2) 19세기 개항, 근대 이행기

3) 한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

4) 냉전의 시작과 냉전기

5) 탈냉전, 21세기

6) 탈근대 이행

- 복합조직원리가 지역질서의 이론적 분석을 굴절시키는 효과를 일목요연한 개념으로 연구하는 일

- 근대 이외의 조직원리가 현재의 근대에 투사되는 층위와 방식을 연구하는 일. 의식/이념/문화적 층위의 구성적 효과, 물질적 차원의 구조를 굴절하는 효과의 구별

- 개별 경험적 사례에 적용된 다수의 조직원리들의 작용에 대한 일반론을 추출하는 일

- 서구 국제정치학 이론의 특수성과 계보학적 설명을 전복하는 일

o 메타이론적 연구 방향

- 인식론; 행위자들의 맥락적 자기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이입적, 이해의 인식론의 필요성. 구성주의/탈근대론/해석학의 도움.

- 존재론; 보다 발달된 구성주의적 존재론의 필요성. 복수의 구조가 행위자를 구성하는 경로와 행위자가 복수의 구조 중에서 특수한 구조들을 강화시키는 구조. 복수의 구조와 복수의 행위자 정체성 간의 관계. 구성된 행위자들의 합리성을 넘어선 감정적 요소들의 단층(기억, 정체성의 정치의 중요성)

- 가치론; 비판이론적 관점, 서구 근대 조직원리의 온존효과에 대한 근본적 비판성, 새로운 탈근대 경로 창출에 대한 규범적 입장, 한국의 전략적 규범기반(중견국의 복합규범)

o SSK 향후 일정

- 1차 년도; 복합조직원리론의 타당성, 구체이론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인식론/존재론의 정교화 작업, 기존 이론들에 대한 굴절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 2, 3차 년도; 1차 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 축적

o SSK 진행 방향

- 연구자들 간의 정기 세미나

- 외부초청자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교류 세미나

- 다른 SSK 팀과의 네트워킹 활동

- 대학원 조교팀 세미나

- 연구성과 발표 conference 및 출판 활동